

옛날 옛적 주년국땅 소스만이 사옵데다. 식설[三歲]적 어머님 죽고 다섯살 적 아바님 죽어 문전걸식(門前乞食) 허시와 방랑생활(放浪生活) 허다네 열다섯 십오세되난 양전 허고 착실해야 동네에 유지존장(有志尊長)덜이 흡흡[合合]이 모아 티끌 모아 태산(泰山)뒈여 금전(金錢) 모아 입장 결혼(入丈結婚)시겨줍데다.

소스만이 부인님 손제주 조아지고 바농질¹⁾ 조아져 품팔이 허여네 흡흡이 금전 모아 구명도식(救命圖食)허여 사옵데다.

흐를날은 날씨²⁾ 우세³⁾ 시우정흐는디⁴⁾ 은?새⁵⁾ 내여놓고 소스만이 부인님 광패머리⁶⁾ 비여끈고⁷⁾ 남인(男便)님안티 말을 허뒈.

“남인님아, 남인님아, 영 놀양⁸⁾ 어떻 사옵네까? 이 머리나 장의⁹⁾ 가정강¹⁰⁾ 돈 석량[三兩]만 받아그네 어린 아기덜 먹고 살을 군량미(軍糧米)나¹¹⁾ 사양 옵서.”¹²⁾

“어서 걸랑 그리 헤자.”

영 허연 간 돈 석량을 받읍데다.

돈 석량을 받아아전¹³⁾ 군량밀(軍糧米) 사카,¹⁴⁾ 집을 사카, 뱃[田]을 사카 헤멍 오단 보난 인간 많이 모아진 곳이 이십데다. ‘요거 무엇인고?’ 바레여 보난 본 디 엇인¹⁵⁾ 물건이로다. 남늘개¹⁶⁾ 귀약통¹⁷⁾ 지리바른¹⁸⁾ 마세총을¹⁹⁾ 노았고나.

“이건 뭐우까?”

“마세조총이우다.²⁰⁾ 이것만 가지민 먹어 살을 도례가 이십네다.”

“언마나 받으쿠가?”²¹⁾

“하영도 말곡²²⁾ 돈 석녕[三兩] 받으쿠다.”

돈 석량 주언 이 총을 사옵데다.

사 아전²³⁾ 집으로 들어오난 설운 부인님은

1) 바농질 : 바느질.

2) 날째 : 날씨.

3) 우세 : '날째'에 맞춘 조운구(調韻句).

4) 시우정흐는디 : 날씨가 비 올 듯이 흐리어 좋지 않은데.

5) 은?새 : 은(銀)가위.

6) 광패머리 : 어떤 머리인지 미상.

7) 비여끈고 : 베어 끊고.

8) 영 놀양 : 이렇게 놀아서.

9) 장의 : 장(場)에. 곧 시장에.

10) 가정강 : 가져가서.

11) 군량미(軍糧米) : 먹을 쌀이란 뜻으로 쓴 것.

12) 사양 옵서 : 사 오십시오.

13) 받아아전 : 받아서. 받아 가져서.

14) 사카 : 살까.

15) 본디 엇인 : 본 바 없는.

16) 남늘개 : 남날개. 화약, 탄알 등을 넣는 그릇.

17) 귀약통 : 화승총(火繩銃)의 화약을 담는 통.

18) 지리바른 : 총열이 바른.

19) 마세총 : 마상총(馬上銃).

20) 마세조총이우다 : 마상조총(馬上鳥銃)입니다.

21) 받으쿠가 : 얼마 받겠습니까.

22) 하영도 말곡 : 많이도 말고.

23) 아전 : 사 가지고.

“어느제민²⁴⁾ 남편님 돌아오랑 풀쌍한 아기덜 구명도식(救命圖食) 시기리.”
지드리고 지드리단 보난 부짓뎅이 ?뜬²⁵⁾ 물건 아전 옵데다.
“그게 굴량미(軍糧米)우까? 설운 남인(男人)님아.”
“모른 말 말라. 이것만 가지민 먹어 살을 도레가 싯젠 허여라.”²⁶⁾
그날부띠 굴미굴산²⁷⁾ 노주봉산²⁸⁾ 올라가고 매앗인동산²⁹⁾ 높은 동산 누자운 굴형³⁰⁾ 곳곳마다
마련허여도³¹⁾ 대(大)노리³²⁾ 소(小)노리 노리 사슴 엊어지고 허허(虛虛) 빈손[空手] 돌아오난.
“설운 남인님아, 어느 거 대(大)노리 소(小)노리 노리 사슴 강녹(角鹿)이우까? 어떻허영 이 풀쌍
흔 아기덜 구명도식(救命圖食) 시깁네까?”
“?만 시라.³³⁾ 가죽도 훈 눌³⁴⁾ 괴기[肉]도 훈 눌 훌 때가 실거여.”
메날[毎日] 헤전³⁵⁾ 뎅겨도 빈 손으로 오는디, 흐를날은 드릇 노변[野路邊] 행놋질(行路一)을 넘
어가단 우연(偶然)이도 웬발[左足]이 차, 넘어가젱 흐민 또 차곡 또 차곡 삼식번[三番]을 차가난.
“야, 이 풀 쏘곱에³⁶⁾ 무스게³⁷⁾ 묻어젼 영 허염신고?”³⁸⁾
수만이 져였단 몽동이로 풀을 삼식번 후리난 풀 쏘곱에서 난디웃인 쟁그랑 흐는 소리가 납데다.
“야, 이거 무슨 소린고?”
알[下]을 바레여보니 풀 쏘곱에 벡년헤골(百年骸骨) 벡년머리[百年頭]가 이섰고나.
“야, 추(醜)하고 더럽다.”
수만이 기냥 지나가젠후 난 다시 웬발[左足]을 차게 뒤여.
“야, 이거 웬 일인고? 이게 나에게 테운³⁹⁾ 게 아닌가?”
수만이가 벡년헤골을 아전⁴⁰⁾ 집으로 돌아오란 아무도 모르게 상고팡에⁴¹⁾ 들어가 대독⁴²⁾ 안네
디려놓고, 이걸 수만이 집안에 초상(祖上)이엔 허연 기일 제소(忌日祭祀) 때나 집안에 어떠흔 대
소(大事)가 이실 때라도 췇봉으로⁴³⁾ 위허여 지날 때, 수만이가 삼십 서른식 당후니 저승 염내왕
(閻羅王)에 분부를 마트고⁴⁴⁾ 신양삼체소(—三差使)가⁴⁵⁾ 수만이 잡으레 인간으로 누려삽데다.
누려사가난 벡년헤골(百年骸骨)이 수만이 꿈에 선몽(現夢)을 드리워, 벡발노장(白髮老長)이 상
고팡(上庫房)으로 나오멍.

24) 어느제민 : 언제면.

25) 부짓뎅이 ?뜬 : 부지깽이같은.

26) 싯젠 허여라 : 있다고 하더라.

27) 굴미굴산 : 매우 깊은 산의 뜻으로 씀.

28) 노주봉산 : 산 이름이나 미상.

29) 매앗인동산 : 구좌면(舊左面)에 있는 지명.

30) 누자운 굴형 : 낮은 구령.

31) 마련허여도 : 뒤져 다녀도. 곧 짐승을 찾아 사냥다녀도의 뜻.

32) 대(大)노리 : 대(大)노루.

33) ?만 시라 : 가만 있거라.

34) 눌 : 한 가리.

35) 헤전 : 종일.

36) 쏘곱에 : 속에.

37) 무스게 : 무엇이.

38) 영 허염신고 :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39) 테운 : '주어진'의 뜻.

40) 아전 : 가져서.

41) 상고팡 : 상고방(上庫房). 광을 일컫는 말.

42) 대독 : 큰 독.

43) 췇봉으로 : 첫째로. 제일 처음에.

44) 마트고 : 맡고.

45) 신양삼체소(—三差使)가 : '신양-'은 미상.

“야.⁴⁶⁾ 스만이 부베간(夫婦間)아 느네덜은⁴⁷⁾ 어찌 그렇게 무심(無心)히 즘을 자느냐? 서른싯만기(滿期)가 뛰는 날 저승 염내왕(閻羅王)에서 널 잡으려 신양삼체서가 누릴 듯하다. 어서 바삐 일어낭 연주단발신연맹무(剪爪斷髮身嬰白茆)하고 스만이가 날 만나던 삼도전거리예⁴⁸⁾ 가서 닐날[來日] 밤이랑 쪽지펭풍(屏風)⁴⁹⁾ 옆둘르곡⁵⁰⁾ 비즈낭[榧子木] 좁상을⁵¹⁾ 싱경⁵²⁾ 맑은 음식 단정히 층려놓곡 상촉권상(香燭勸上)을 지도토와⁵³⁾ 너의 일름(名) 삼째(三字)를 써 가지고 젯상 알[祭床下]에 부찌두고 벡보 밧것[百步外]디 업데허영,⁵⁴⁾ 조용흔 밤에 어느 누게 불러도 데답(對答)을 말았당 초편(初番) 이편(二番) 삼편(三番)을 불르건 머릴 들렁 데답하라. 기영후곡⁵⁵⁾ 스만이 부인이 랑 날이 새건 신의성방(神房)을 청허여당 뱃것딜로⁵⁶⁾ 대통기를⁵⁷⁾ 비습고⁵⁸⁾ 염냇대(閻羅竿)를 싱거근 저승 염내왕을 청허영 대시왕연맞이를⁵⁹⁾ 흐뤄, 대시왕(大十王) 저승 염내왕(閻羅王) 앞으로 관디(冠帶) 삼베⁶⁰⁾ 띠 삼(三) 베 훠⁶¹⁾ 삼(三) 베 대(大) 말치⁶²⁾ 소(小) 말치 주석상동이⁶³⁾ 상백미(上白米) 중백미 하백미(下白米) 동이 ?득 지올려,⁶⁴⁾ 황바깔쉐⁶⁵⁾ 스만삼필(四萬三匹)을 데령(待令)후곡 천수방액(天授防厄)을 막암시민⁶⁶⁾ 알 도례(道理) 이시리라.”

떳딱 깨여난 보난 꿈에 선몽(現夢)이라.

“어서 바삐 일어낭 그대로 허여사 홀로고나.”

그날부띠 삽시예 신의성방⁶⁷⁾ 청허여단 염냇대[閻羅竿] 싱그고 뱃것딜로⁶⁸⁾ 대시왕연맞일 허여가멍 그날이 어둑음을⁶⁹⁾ 지드려⁷⁰⁾ 벡년머리[百年頭] 있단⁷¹⁾ 인무초(人無處)⁷²⁾훈 삼도전거리 나아가 쪽지펭풍 둘러치고 비즈낭 좁상 싱거 서천강노기메⁷³⁾ 미나리 정근체(菁根菜) 몰콥[馬蹄]⁷⁴⁾ 뜬 벡시리⁷⁵⁾ 얼음[氷]⁷⁶⁾ 뜬 벡돌레⁷⁷⁾ 계랄안주(鷄卵按酒) 청감주(清甘酒) 든정궤⁷⁸⁾ 층려놓고 스만이 일름삼제[名三字]를 써놓아 젯상(祭床) 알에 부찌두고 벡보(百步) 밧것들로⁷⁹⁾ 나아가 업데허여 앗

46) 야 : 이 애야.

47) 느네덜은 : 너희들은.

48) 삼도전거리예 : 세거리에.

49) 쪽지펭풍(屏風) : 쪽을 내어 칸을 가른 병풍?

50) 옆둘르곡 : 옆 두르고.

51) 좁상을 : 겹상.

52) 싱경 : 심어서. 젯상을 차려 세워서의 뜻.

53) 지도토와 : 돋구어. '지-'는 접두사.

54) 업데허영 : 엎디어서.

55) 기영후곡 : 그리하고.

56) 뱃것딜로 : 바깥으로.

57) 대통기 : 큰굿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대(염냇대)에 달아매는 기. 원래는 용(龍) 모양의 기를 달았다 함.

58) 비습고 : 세우고의 뜻.

59) 대시왕연맞이 : 시왕맞이 굿 이름.

60) 삼베 : 세 벌. '베'는 신, 버선 등을 세는 단위.

61) 훠 : 신의 한가지. 수혜자(水鞋子). 혜(鞋).

62) 말치 : 큰 말(大斗).

63) 주석상동이 : 주석(朱錫)으로 만든 좋은 동이.

64) 지올려 : 올려. '지-'는 접두사.

65) 황바깔쉐 : 황(黃) 밭가는 소(耕牛) 곧 노란 수소를 일컬음.

66) 막암시민 : 막고 있으면.

67) 신의성방 : 신의 형방(神房). 곧 심방(巫).

68) 뱃것딜로 : 바깥으로.

69) 어둑음을 : 어두움을.

70) 지드려 : 기다려.

71) 있단 : 있던.

72) 인무초(人無處)훈 : 조용한 곳의 뜻.

73) 서천강노기메 : 놋그릇에 쌀을 넣고 솔 속에 놓아 김을 올려 찐 멧밥. '노기메' '노기당산메' '서천강노기메' 등이라 일컬음.

74) 벡시리 : 하얀 시루떡.

75) 벡돌레 : 하얀 도래떡.

76) 든정궤 : 단(甘) 정과(正果).

77) 밧것들로 : 바깥으로.

았더니, 초경(初更) 이경(二更)이 근당(近當)해야. 아닐쎄⁷⁸⁾ 저승 염내왕(閻羅王)에 몸받은 삼체서(三差使) 인간을 누려산 주년국땅을 누려오단 보니, 천양처서(天皇差使) 말을 헤워
“야, 난디웃인 시장끼가 훈이 엊구나.”

남은 두 처서(差使)가,

“우리도 역시 그렇습네다.”

인왕처서(人皇差使) 말을 헤워,

“어찌 인무초(人無處)하고 무지공지(無主空地)훈 이 노상(路上)에 상촉권상내(香燭勸上臭)가 나고 초미연당상 내⁷⁹⁾가 납네다.

천왕처서(天皇差使)가,

“나도 역시 그렇습네다.”

삼처서(三差使)가 삼수방(三四方)을 두리두리⁸⁰⁾ 수펴보니,

“인무초(人無處)훈 디 난디웃은 불이 싸⁸¹⁾ 잇수다. 우리 저딜⁸²⁾ 가 보기 어찌 헤오리까?”

삼처서가 가고보니, 쪽지펭풍(屏風)에 비즈낭접상 싱거놓고 맑은 음식을 단정하게 출려노안 시니⁸³⁾ 삼처서(三差使)가 베고픈 지망에⁸⁴⁾ 청감주(清甘酒) 계랄안주(鷄卵按酒) 하나씩 들렸더니 시장끼를 멀린 듯허연.

“야, 이거 산(山)이라도 넘곡 물이라도 넘어지겠수다.”

천양체소가 보젠차년게⁸⁵⁾ 젯상(祭床) 알[下]을 부레여보난⁸⁶⁾ 수만이 일름 삼젤(三字) 벽지(白紙)예 썬 부찌시니⁸⁷⁾,

“야, 지왕체소(地皇差使) 인왕체소(人皇差使)님아, 이거 큰일 낫수다.”

일축수제 어금베도소(日直使者御禁府都事)는,

“어떤 일이 템네까?”

“월축수제(月直使者)가 말을 헤워,

“야, 이거 보십서. 난디웃인 벽지(白紙)예 수만의 일름이 써 있수게.”⁸⁸⁾

적베지(赤牌紙)옛 일름광 벽지(白紙)옛 일름 삼제(三字)가 끌림이 엉어지고,

“아, 이거 우리 수만의 음식을 먹어진 게 끌림었구나.”

어금베도소(御禁府都事)가 말을 헤워,

“야, 우리가 놈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법인디 이 일을 어찌 헤민 조으리까?”

월칙사제(月直使者)가 말을 헤워,

“우리 삼처서(三差使)가 수만의 일름을 훈번씩 불러보기 어찌 헤오리까?”

“어서 걸랑 기영흡주.”⁸⁹⁾

78) 아닐쎄 : 아닌게아니라.

79) 초미연당상내 : 향명(香名). ‘내’는 냄새.

80) 두리두리 : 두리번거리는 모양.

81) 싸 : 켜.

82) 저딜 : 저기를.

83) 시니 : 있으니.

84) 지망에 : 김에.

85) 보젠차년게 : 보려고 아니한 것이.

86) 부레여보난 : 바라보니.

87) 부찌시니 : 써서 붙여 있으니.

88) 있수게 : 있지 않습니까.

89) 기영흡주 : 그리하지요.

천왕처수(天皇差使)가 ‘수만아!’ 일름을 불러도 데답(對答)이 엊어지고⁹⁰⁾ 지왕처수(地皇差使)가 ‘소수만아!’ 일름을 불러도 데답이 엊어지고 인왕처서가 ‘소수만아!’ 일름을 불렀더니 백보 밖[百步外]의서 ‘예.’ 데답후명 얼굴을 들르는 걸 보난 뜰림엇인 소수만입데다.

삼체수(三差使)가 앗아 이논(議論) 훠뒈.

“우리 놈[他]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법이니, 이 일을 어찌 훈민 조으리까? 수만이는 잡을 수 엊어지고, 우리 그리 말고 수만의 집이나 쫓아가 보기 어찌 훈오리까?”

“어서 걸랑 그리흡시다.”

삼체서가 수만의 집을 쫓아간 보니, 뱃것들로 염낸대[閻羅竿]을 싱거놓고⁹¹⁾ 대시왕연맞이, 저승 염내왕(閻羅王) 앞으로 수만의 부인이 천오대액(天爲大厄)을 막뒈 관디(冠帶) 삼(三)베 띠 삼(三)베 모대(帽帶) 삼베 각띠(角帶) 삼(三)베 대말치 소말치 은(銀)동이 놋[銅]동이 주석상동이 상백미(上白米) 중백미 하백미(下白米) 동이 ?득 싱거 놓고 황바깥쉐[黃牡牛] 수만삼필(四萬三四) 데령허연 신앙삼체수에 천수방액(天授防厄)을 막암시니.⁹²⁾

“자, 이러고보니 어찌 수만이를 잡아갈 수 있소리까?”

천왕추수(天皇差使)가.

“야, 우리 뒤였습네다. 우리가 저승으로 올라강⁹³⁾ 동조판관실(童子判官室)에 들어가 저승 장적(帳籍)을 걷어보민 알 도례(道理) 있소리다.”

삼처수가 저승으로 들어가 열시왕(十王) 저승 염내왕(閻羅王) 열다섯 동조판관이 대시왕연맞이로 인간을 누려산 트망에⁹⁴⁾ 동조판관실에 들어간 저승 장적 걷어 놓고 보니 수만이가 삼십 서른섯[三十三] 수구전맹(四苦定命)이 매깁데다.⁹⁵⁾ 그제사 천양처서(天皇差使)가,

“우리 이것을 벤경(變更)시기기 어찌 훈오리까?”

“어찌 훈민 조리까?”⁹⁶⁾

일만장 베리[一萬張硯]예 일천장(一千張)의 먹을 골고 좀이 ?든⁹⁷⁾ 붓 훈 주록을⁹⁸⁾ 앗아내여⁹⁹⁾ 삼십(三十) 열십제(十字)예 훈 그뭇¹⁰⁰⁾을 비껴봄데다.¹⁰¹⁾

“자, 이만 훈민 어찌 훈리.”

그제사 장적(帳籍)을 디려놓고 삼체수(三差使)가 나아간다.

저승 염내왕(閻羅王) 동조판관(童子判官)이 오란¹⁰²⁾ 삼체수를 불러놓고,

“수만이를 웨 아니 잡아 왔느냐?”

“염나대왕님아 동조판관(童子判官) 아피 문답(問答)을 허여봄서. 수만이는 전맹(定命)이 아닌디 어찌 잡아드리라 했소리까? 수만이는 삼십 서른 전맹(定命)이 아니라 삼천년(三千年)을 도업(都邑) 훈라¹⁰³⁾ 허였습네다.”

90) 엊어지고 : 없어지고.

91) 싱거놓고 : 싱거놓고. 세워놓고의 뜻.

92) 막암시니 : 막고 있으니.

93) 올라강 : 올라가서.

94) 트망에 : 틈에.

95) 매깁데다 : 끝입니다. 그만입니다.

96) 조리까 : 좋으니까.

97) 좀이 ?든 : 한 줌이 가득한.

98) 훈 주록을 : 한 자루를.

99) 앗아내여 : 가져내어.

100) 그뭇을 : 한 금. 한 획.

101) 비껴봄데다 : 비스듬히 그어 버립니다.

102) 오란 : 와서.

“아, 이거 어떤 말이냐?”

동주판관이 장적(帳籍)을 삭삭 걷어난¹⁰⁴⁾ 보더니,

“수만이가 삼십 서른 전맹(定命)인 중¹⁰⁵⁾ 알았는디 열십제(十字)예 훈 그릇이 비껴시니¹⁰⁶⁾ 삼천년이 됐을네다.”

“하, 이거 오착이 됐었구나.”

주년국땅 수만이가 삼처서(三差使)에 엑년(厄緣)을 막아 삼천년(三千年)간 도업¹⁰³⁾한 법이 있습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옛날 옛적 주년국 땅에 소사만이가 살디다. 세살 적에 어머님이 죽고 다섯살 적에 아버님이 죽어 문전걸식 하며 방랑생활을 하는데, 열다섯 15세 되니 양전하고 착실하여, 티끌 모아 태산으로 동네 유지 존장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장가를 보내줍니다.

소사만이 부인님이 손재주가 좋고 바느질을 잘 하여 품팔이 하면서 조금씩 금전을 모아 끼니를 이어 살디다.

하루는 날씨가 비올 듯 좋지 않은데 은가위 내놓고, 소사만이 부인님이 긴 머리를 잘라 놓고, 남인님에게 말을 하되,

“남인님아, 남인님아, 이렇게 놀아서 어떻게 살니까? 이 머리나 시장에 갖고 가서 돈 석냥만 받아 어린 아기들 먹고 살 쌀이나 사 오십시오.”

“어서 그건 그렇게 하자.”

이리하여 시장에 가서 돈 석냥을 받고 쌀을 살까, 집을 살까, 밭을 살까 하면서 오다 보니 인간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여 바라보니 본 바 없는 물건입니다. 남날개 귀약통과 조총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조총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먹고 살 도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겠습니까?”

“많이도 말고 돈 석냥을 받겠습니다.”

돈 석량을 주고 이 총을 살디다. 사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니, 설운 부인님은,

“언제면 남편님이 돌아와 불쌍한 아기들 밥이나 해 줄까?”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 부지깽이 같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쌀입니까? 설운 남인님아.”

“모른 말 말아라. 이것만 가지면 먹어 살 도리가 있다고 하더라.”

103) 도업(都邑) : 여기서는 ‘이 세상에 살아라’는 뜻으로 쓴 것.

104) 걷어난 : 걷어 놓아서.

105) 중 : 줄.

106) 비껴시니 : 빚기 그어 있으니.

그날부터 깊은 산 노주봉산 올라가고, 매앗인 동산 높은 동산 낮은 구렁 곳곳마다 헤매어도 대노루 소노루 노루 사슴 한 마리 걸리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오니.

“설운 남인님아, 어느 것이 대노루 소노루 노루 사슴입니까? 어떻게 이 불쌍한 아기들을 먹여 살립니까?”

“가만 있어라. 가죽도 한 가리 고기도 한 가리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매일 하루 종일 다녀도 빈 손으로 돌아옵니다. 하루는 들길을 넘어가는데 우연히 원발이 채어 넘어가려 하면 또 채고 또 채고 세번을 채어 가니.

“야, 이 풀 속에 무엇이 묻어져 이런가?”

사만이는 쥐었던 몽둥이로 풀을 세번 때리니 풀 속에서 난데없이 쌩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야, 이거 무슨 소린고?”

아래를 바라 보니 풀 속에 백년 해골이 있었구나.

“야, 추하고 더럽다.”

사만이가 그냥 지나가려 하니, 다시 원발이 채이자.

“야, 이거 웬 일인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사만이가 백년 해골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고방에 들어가 큰 독 안에 들여놓고, 이걸 사만이 집안의 조상이라 하여, 기일제사 때나 집안에 어떠한 대사가 있을 때 첫째로 위하여 지냅니다. 사만이가 서른세 살을 당하니 저승 염라왕의 분부를 맡고 삼차사가 사만이를 잡으러 인간 세상으로 내려섭니다. 내려서 가니 백년 해골이 사만이 꿈에 현몽을 드리되, 백발노장이 고방으로 나오면서,

“야, 사만이 부부간아,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무심히 잠을 자느냐? 서른 셋 만기가 되는 날 저승 염라왕에게서 너를 잡으러 삼차사가 내릴 듯하다.어서 바삐 일어나서 정성을 드리되, 사만이가 날 만나던 세거릿길에 가서 내일 밤에는 족자병풍으로 옆을 두르고, 비자나무 겹상에다 맑은 음식을 단정히 차려 놓고, 향촉을 돋우어 너의 이름 석 자를 써서 세상 아래에 붙여두라. 그리고 백보 밖에 엎드려서 조용한 밤에 어느 누가 불러도 대답을 말았다가 첫번 두번 세번을 부르거든 머리를 들고 대답하라. 그렇게 하고, 사만이 부인은 날이 새면 심방을 청하여다가 바깥으로 대통기를 세우고 염랏대를 세워서 저승 염라왕을 청하여 시왕맞이를 하되, 시왕 저승 염라왕 앞으로 관대 세 벌, 띠 세 개, 신 세 결레 그리고 큰 동이에 상백미, 중백미, 하백미, 좋은 쌀을 가득 올리고, 황소 사만삼 필을 대령하여 방액을 하고 있으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

퍼뜩 깨어나 보니 꿈에 현몽이었다.

“어서 바삐 일어나 그대로 하여야 하겠구나.”

그날부터 삽시에 심방 청하여다가 염랏대를 세우고 바깥으로 시왕맞이를 하여 가면서, 그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백년 해골 있던 인적이 없는 세거릿길로 나아가 족자병풍을 둘러치고 비자나무 겹상을 심어 서천강노기메, 미나리 청근채, 말굽같은 백시루, 얼음같은 백도래, 계란안주, 청감주, 단정과를 차려 놓고, 사만이 이름 삼자를 써 놓아 세상 아래 붙여 두고 백보 바깥으로 나아가 엎드려 있습니다. 초경 이경이 가까우니, 아닌게 아니라 저승 염라왕에 소속된 삼차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서서 주년국땅을 내려오다 보니, 천황차사가 말을 하되,

“야, 난데없이 시장끼가 한이 없구나.”

남은 두 차사가,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황차사가 말을 하되,

“어찌 사람의 거처가 없고 주인 없는 빈 땅인 이 노상에 향을 피우는 냄새가 납니다.”

천황차사가.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삼차사가 삼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보니.

“사람의 거처는 없는데 난데없는 불이 켜 있습니다. 우리 저기를 가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삼차사가 가서 보니, 쪽지병풍에 비자나무 겹상을 차려 세워서 맑은 음식을 단정하게 차려놓고 있으니, 삼차사가 배고픈 김에 청감주, 계란안주를 하나씩 먹었더니 시장끼가 가신 듯하여.

“야, 이거 산이라도 넘고 물이라도 넘겠습니다.”

천황차사가 보려고 아니했는데, 제상 아래를 바라 보니, 사만이 일름 삼자가 백지에 쓰여 붙여 있구나.

“야, 지황차사 인황차사님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일직사자 어금부도사는,

“어떤 일이 됩니까?”

월직사자가 말을 하되,

“야, 이거 보십시오. 난데없이 백지에 사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적폐지의 이름과 백지의 이름 석 자가 틀림없이 같습니다.

“야, 이거 우리 사만의 음식을 먹은 게 틀림없구나.”

어금부도사가 말을 하되,

“야, 우리가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목 걸리는 법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월직사자가 말을 하되,

“우리 삼차사가 사만의 이름을 한번씩 불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천황차사가 ‘사만아!’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지황차사가 ‘소사만아!’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인황차사가 ‘소사만아!’ 이름을 불렀더니 백보 밖에서 ‘예.’ 대답하면서 얼굴을 드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소사만입니다.

삼차사가 앉아 의논하되.

“우리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목걸리는 법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제 사만이는 잡아갈 수 없으니, 나중에야 어찌 되든 사만의 집이나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서 그것은 그리합시다.”

삼차사가 사만의 집을 찾아가 보니, 바깥에 염랏대를 세워놓고 시왕맞이를 하며, 사만이 부인이 저승 염라왕에게 대액을 막되 관대 세 벌, 띠 세 벌, 모대 세 벌, 각대 세 벌, 주석동이에 상백미, 중백미, 하백미 가득 놓고, 황소 사만세 필을 대령하여 삼차사에게 방액을 하고 있으니,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어찌 사만이를 잡아갈 수 있으리까?”

천황차사가.

“야, 우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승으로 올라가 동자판관실에 들어가 저승장적을 걷어보면 알 도리가 있습니다.”

삼차사가 저승으로 들어가 열시왕, 저승 염라왕, 열다섯 동자판관이 시왕맞이를 받으러 인간을 내려선 틈에 동자판관실에 들어가서 저승 장적을 걷어놓고 보니, 사만이가 서른 셋 정명이 끝입니다. 그제야 천황차사가.

“우리 이것을 변경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찌하면 좋으리까?”

1만장 벼루에 1천장의 먹을 같고 한줌 가득한 볶 한 자루를 꺼내어 삼십 열십자에 한 금을 비스듬히 그어버립니다.

“자, 이만하면 어쩔까.”

그제야 장적을 드려 놓고 삼차사가 나간다.

저승 염라왕 동자판관이 와서 삼차사를 불러놓고.

“사만이를 왜 안 잡아왔느냐?”

“염라대왕님아, 동자판관에게 문답을 해 보십시오. 사만이는 정명이 아닌데 어찌 잡아들이라 했습니다? 사만이는 삼십 서른이 정명이 아니라 3천년을 살라고 하였습니다.”

“야, 이거 어떤 말이냐?”

동자판관이 장적을 짹싹 걷어 놓고 보니,

“사만이가 삼십 서른 정명인 줄 알았는데 열십자에 한 획이 빗겨 그어 있으니 3천년이 됩니다.”

“하, 이거 착오가 되었구나.”

주년국 땅 사만이가 삼차사의 액을 막아 3천년간 살던 법이 있습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172-183.